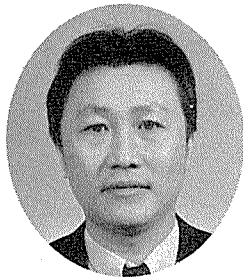


특집 Ⅲ

말레이시아 전기·전자 전시회 파견 결과 보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통상 전시팀
대리 강 용 진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최근 IMF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침체 및 수출 부진으로 전기공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바,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수출촉진으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 진흥회에서는 동남아 수출 유력국가인 말레이시아 전기박람회에 대규모 바이어 참관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참가비를 지원하는 한국전력공사 후원하에 『한국 전기산업 홍보관』을 설치·운영함

나. 목적

- 동남아지역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통한 수출 촉진 활성화
- 한국의 전기기기 제품 우수성 및 전력산업 현황 홍보
- 해외업체 한국내 전기공업 투자유치 홍보
- '99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홍보

2. 운영 개요

- 기 간 : '99. 5. 4 ~5. 7 (4일간)
-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Putra World Trade Center
- 주 관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후 원 :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참가규모 : 14개사 126m² (14부스)

○ 참가업체 및 상담실적

(단위 : 천US\$)

업 체 명	상담바이어수	상담금액	계약체결금액	전 시 품 목
삼화기연(주)	250명	443	200	Electronic Overcurrent Relays, Bag Case Simulator for Relays
(주)서일기전	220명	1,500	332	Auto Transfer Switch, Air Circuit Breakers
(주)광명기전	150명	1,300	100	Vacuum Circuoit Breaker Load Break Switch, Lightning Arrester Surge Absorber
삼흥중전기공업(주)	250명	500	-	Polymer Rubber Insulator
신정우산업	100명	100	-	Raditor for Oil Immersed Transformer
중원전기공업(주)	200명	1,670	500	Cutout Switch, Lightning Arrester Power Fuses
(주)진성인더스트리	200명	98	35	Cable Tray, Cable Duct
선광전기(주)	150명	-	-	Ballast for Discharge Lamp Fishing Lamp Small Transformer
씨피시스템	150명	10	-	Flexible Tube for Cable Protection, Plastic Connector
국제전기(주)	150명	1,200	-	UPS, Power Transformer
(주)크로스티이씨	100명	600	-	UPS, C.V.C.F
보국전기공업(주)	100명	950	-	Generator
대연전자(주)	350명	456	150	Power Protective Relay Power Transducer Instrument Transformer
극동전선공업(주)	250명	1,520	-	Cables
한국전기공업진흥회	250명	-	-	'99서울국제종합전기전 안내서 '98/'99 Korean Electrical Industrv
계	2,520명	10,347	1,317	

3. 참가업체 제품 반응 및 시장성

가. 참가업체 제품 반응

- 삼화기연
 - 동업체 생산품목은 ABB, 지멘스 등의 80% 정도 말레이시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은 선진국보다 앞서며, 기술수준은 다양성·실용성분야는 선진국보다 우수하나 Brand 이미지로 시장점유율이 한계성이 있으나 현지에서 반응이 좋아 연간 40만불 정도 수출가능성이 있음.
 - 동전시회를 계기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Distributor를 통한 판매전략을 구사하고 A/S등 신뢰성으로 자사 Brand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임.
- 삼흥중전기공업(주)
 - COS, Cable head, 고무애자등은 가격면에서 경쟁업체가 없으나, 이번 전시회 참가계기로 연간 50만불 정도 수출가능성이 있음.
 - 말레이시아 전력회사 TNB는 고무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향후 인식전환으로 인한 대량 발주가 예상되는 품목임.
- 신정우산업
 - 현지 변압기 제조업체 4개사 정도 있으나, 독일 MeMk사가 방열기 제조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Meidem사도 방열기 제조공장을 갖고 있어 시장 진출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전력청 입찰시 참가업체를 통한 진출이 용이함.
 - 현지 바이어에 제품호평이 좋고 국내유일이 방열기 수출업체로서 향후 선진국 및 동남아 일부지역에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임.
- 주상용 변압기 방열판은 TNB(말레이시아 전력회사)에서 제조가 가능함.
- (주)광명기전
 - 동업체의 VCB는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품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제품사양을 바이어 요구대로 변경해주면 시장진출 가능성이 큰 품목임. 연간 100억정도 시장규모로써 VCB 38kV는 동시장 독점이 가능함.
 - 향후 ASTA 인증 획득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음.
- 중원전기공업(주)
 - Road Break Switch, Power Fuse 등은 현지 바이어에 연간 50만불 계약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극동전선공업(주)
 - 말레이시아 정보화 도시 건설등으로 LAN Cable은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며, Power Cable은 Pirrelli사의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함. 전선도 ASTA 인증과 상관없이 현지 유망 에이전트를 통한 시장진출이 용이함.
- 크로스스티씨
 - 선진제품보다 가격경쟁력 및 제품기능이 다양성으로 현지 바이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기불황이 호전된다면 시장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임.
 -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남아공 바이어들이 내방하여 동업체와 Distributor Ship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시장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임.
- 서일기전(주)
 - 기존 현지 Agent를 통한 수출을 계속하고 있어 동전시회를 계기로 Brand 이미지를 확고

히 하였으며, 현재 준비중인 ASTA 인증획득을 하면 좀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며 동전시간중 33만불을 계약함.

나. 참가제품 시장동향

【DIGITAL MULTIMETER】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동품목은 대만(GOODWILL), 일본(KYORITSU), 미국(FLUKE)산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시장 신규 진출은 쉽지 않음. 연간 시장규모는 US\$ 1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품질면에서는 미국산이 가장 좋으나 대만산의 가격이 낮아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음.
- 동품목에 대한 주요 사용처는 교육기관임. 말레이시아의 산업과정에서 많은 기술전문학교, 대학이 설립되어 이들 수요가 많음. 제조업분야에서도 수요가 있으나 많지는 않음. 교육부 등록업체만이 가격 및 프로모션을 제출할 수 있음.
- 한국산이 말련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불량률을 줄여 제품신뢰도를 높힐뿐 아니라 A/S등 사후 고객관리가 필요함.

【OVER CURRENT RELAY】

- 동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연간수요는 약 2,000개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대략 US\$ 1.58백만 정도로 추산됨.
- 외국기술 이전을 받은 현지업체가 최대규모의 생산업체인데, 브랜드명은 ABB임.
- 3대 주요 브랜드로는 말련산(ABB), 독일산(AEG), 터키산(ENTS) 등이 있음.

- ABB 제품의 판매가격대는 RM 3,000~3,500선, AEG는 RM 2,700~3,200선, ENTES는 RM 2,100~2,400선에서 형성되고 있음.
-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수출상 → 수입상 → 디스트리뷰터 → 생산 및 조립업체임.
- 지금까지 한국산의 시장진출전략은 타국가에 비해 양호한편이었으나, 품질과 포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AIR CIRCUIT BREAKER】

- 동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연간수요는 약 1,500개 정도이며, 현지업체의 브랜드(ABB)가 강한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음.
- 주요 4대 브랜드는 일본산(TERASAKI), 말련산(ABB), 프랑스산(LASEN TURBO, MERLIN GERLIN)임.
- 주요 유통구조 : 수출상 → 수입상 → 디스트리뷰터 → 생산업체, 발전소
- 지금까지 한국산의 시장진출전략은 타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으나, 품질과 포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AUTOMATIC TRANSFER SWITCH】

- 동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연간수요는 약 1,000개 정도이며, 2개 브랜드(일본산 KYORITSU, 프랑스산 SOCOM)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
- 주요 유통구조 : 수출상 → 수입상 → 디스트리뷰터 → 생산업체, 발전소
- 지금까지 한국산의 시장진출전략은 타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으나, 품질과 포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POWER PROTECTIVE RELAY】

- 동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연간수요는 약 2,000개 정도이며, 현지 브랜드 ABB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주요 브랜드로는 말련의 ABB, 독일의 AEG, 터어키의 ENTES가 유명함.
- 지금까지 한국산의 시장진출전략은 타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으나, 품질과 포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BALLAST】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동품목에 대한 수요는 연간 6백만개로 주로 현지산으로 충당되고 있음. IEC/MS와 같은 현지산 브랜드의 품질이 거의 국제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
- 주요 3대 브랜드로는 말레이시아의 SOLEX, LUXRAM, REFAS임. 가격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RM 5~10선임.

【GENERATOR】

-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95% 이상이 디젤 타입임. 2가지가 있는데 300Kva 이상의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농업용과 20~30Kva 정도의 건설용으로 구분됨. 7마력에서 200Kva 사이가 가장 수요가 많음.
- 말련시장에서 유통되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중

일본산 MARUYAMA, DENYO, MITSUBISHI, 미국산 CATEPILLA, 영구산 ROBIN ENGINE류가 주종을 이룸.

【UPS】

- 말련내 동품 생산업체가 7개정도 있어 시장경쟁이 치열함.
- 말레이시아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중 LINEGUARD, PK ELECTRONICS, SUCCESS QPS 브랜드가 유명함.

【POWER CABLE】

- 말련내 전선 생산업체가 있지만 품질면에서는 떨어짐. 고품질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일본 브랜드가 가장 유명한데 SUMITOMO, MATSUSHITA 등
- 대부분 입찰형태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믿을만한 현지 에이전트 물색이 중요함.

【TRANSFORMER】

- 말련의 연 시장규모는 RM 1~2십억정도임. 주로 입찰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
- 유럽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산 ABB & SGB, 네덜란드산 HOLEC이며 ABB, GEC, SCHNEIDER, GEC순임.
- 한국산은 중급품에 속하며 유럽산이 독차지하고 있는 고가 프로젝트를 수주 받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필요로 함.

【RADIATOR FOR OIL IMMERSSED TRANSFORMER】

- 동품목의 연간 시장규모는 RM 1.5십억정도에 달함. 대부분 TRANSFORMER 제조업체 또는 조립업체에서 필요로함. 말련내 유통되는 브랜드는 몇 개 안되는데 그중 태국산 CHAROENCHAI가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음.
- 말련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와의 협력과 광고등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기술지원 등 불량률을 최소화 해야 함.

4. 종합의견

가. 진출방안

-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변압기, 차단기, 계정기, 전선등이나 ABB, SIEMENS등 유럽 선진제품이 80%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전력회사 입찰, 건설업체 납품등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영국의 ASTA 인증을 획득해야만 입찰시 유리하며, 민수는 ISO 9000등 국제적인 인증된 품질수준을 갖고 있는 제품이면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데 수월함.
- 중소기업은 현지 유능한 에이전트 발굴 및 무역을 하는 교포를 통하여 전력회사 입찰정보를 입수 및 민수를 통한 시장진출이 용이함.
- 향후 SUPANG 신공항, 경전철, 남북고속도로, PUTRAJAYA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 신발전 대형프로젝트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중전기 시장성은 매우 전망이 높음.

나. 참가업체 제품동향

- 중전기 제품 기술동향으로 소형화·경량화·전자화·fashion화 및 부품 소재의 다양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배전반인 경우 2~4분의 1로 소형화 하고 있으며, 소재의 경우 철재에서 알루미늄화 추세로 경량화 하고 있고, 또한 제품의 패션화·고품질화 추세임.
- 분전반내 사용기기의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제품의 Series화(예 : 열량계용 Timer 등)하고 있으며, 배전회로상의 각종 기기의 Dir Rail에 의한 취부구조를 통일.
- 차단기 및 개폐기는 Case화 및 Light Color를 적용하고 있으며 Ampere Frame size별 차단기를 특화하고 있고, 인버터, UPS 등 전력전자제품은 기능의 다양화 및 Fashion화 추세임.
- 에폭시 애자의 경우 우레텐계 애자로 변화되면서 소재의 경량화 및 모터등은 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완전 자동화 추세임.
- 대부분 중전품목은 금형 및 끝처리의 우수성으로 제품의 고급화 추세임.

다. 전시회 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

- 업체전시품 장치공사
 - 전시참가 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전기업체는 선진업체보다 세련미 등이 부족하며, 조잡하여 바이어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음.
 - 향후 동 사항은 전시 참가업체에 사전협의 및 디자인 등을 홍보하여 보완하고자 함.
- 동종 업체 및 품목 참가배제
 - 참가업체중 동종업체 및 품목의 3~4개가 있

을 경우 현지 바이어들의 가격등에 큰 영향을 미쳐 서로간의 피해를 입을 발생소지가 많아 사전에 진흥회에서 조율할 예정.

○ 업체 상담 및 해외영업

- 동남아 지역의 대부분은 우리 제품의 값싸고 선진국 수준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어 Agent 및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 진흥회 차원에서 건실하고 유망한 바이어를 발굴하여 업체에 정보제공.

○ 참가비 지원확대

- 업체가 개별로 1부스 참가시 참가비 및 운송비, 체재비 등 소요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 업체 부담이 가중됨. 업체에서는 수출촉진을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1순위가 해외유망 전

기박람회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정부 및 한국 전력공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해외전기전문 전시회 다수 참가

- 진흥회 주관(한전후원) 또는 개별업체가 년 1~2회 밖에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여 시장 다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개별업체가 년 5~6회 정도 참가하고 싶어도 소요비용이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한전 및 정부, 기타 관련기관 지원하에 년 5~6회정도 지역별로 꾸준히 참가하는 것이 전기공업 수출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

말레이시아 전기박람회 개요 (ELENEX MALAYSIA '99)

- 기 간 : '99. 5. 4 ~ 5. 7 (4일간)
-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Putra World Center
- 규 모 : 4,200m²
- 주 관 : MALAYSIAN EXHIBITION SERVICES
- 후 원 : TENAGA NASIONAL, JABATAN BEKALAN ELEKTRIK DAN GAS, TEEAM(말레이시아 전기전기공업회)
- 주전시품목 : 발전 및 송배전관련 전력기자재, 조명기기, CCTV 장비등 전자기기
- 참가예상 업체 : ABB, SIEMENS, AEG 등 30개국 250여개 업체
- 특기사항 :
 - 말레이시아 국영전력회사 50주년을 기념한 전기·전자관련 유사 4개 전시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 개최
 -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지역 바이어 다수 참관
- '99년 실적
 - 참가업체수 : 30개국 174개사
 - 주요 바이어 내방객수 : 20,000명